

'선두' 두산, 5경기 4승 1패... 1위 굳히기

79승 1무 43패... 2위 NC 다이노스와 승차 7.5경기차

프로야구 선두 두산 베이스가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다. 두산은 지난주(8월30~9월 4일) 5경기에서 4승1패(승률 0.800)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5일 현재 두산의 시즌 성적은 79승1무43패다. 2위 NC 다이노스와 승차는 7.5경기차다.

지난주 두산의 상승세는 마운드의 힘이 컸다. 5경기 평균자책점이 3.80이다.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와 마이클 보우덴의 원투 편치가 상대팀 타선을 무력화 시켰다.

특히 니퍼트는 지난 1일 잠실 kt 위즈(10위·46승2무72패)전에서 9이닝 2피안타 무실점 1볼넷을 기록하며 완봉승과 함께 시즌 18승째(3패)를 챙겼다.

이는 두산 유니폼을 입고 한국 무대에 데뷔한 지난 2011년 7월1일 잠실 LG 트윈스전 이후 4년만에 올린 KBO 리그 개인 두 번째 완봉승이다.

보우덴도 2일 kt전에서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날렸지만 7이닝 4피안타(1피홈런) 3볼넷 9탈삼진 1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이밖에 13%이닝을 던진 유희관이 2승을 추가하며 시즌 15승과 함께 니퍼트에 이어 다승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산은 이 기세를 몰아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한다. 이후 잠실 라이벌 LG(6위·57승1무64패), 넥센 히어로즈(3위·69승1무52패)와 연이어 만난다. 2위 NC(67승2무46패)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NC는 지난 주말 5경기

에서 3승2패(승률 0.600)를 거뒀다. 홈런 선두 에릭 테임즈가 다소 주춤했지만 김성욱(21타수9안타)과 이종욱(14타수6안타), 박민우(18타수7안타) 등이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NC는 한화 이글스(7위·54승3무64패), KIA 타이거즈(4위·60승1무61패), 삼성 라이온즈(9위·52승1무66패)를 상대한다.

3위 넥센의 기세도 매섭다. 넥센은 지난주 4승2패(승률 0.667)를 기록하며 2위 NC와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NC와의 승차는 2경기다. 무엇보다 방망이가 뜨거웠다. 김민성은 지난 주간 타율 0.538(26타수14안타)로 1위에 올랐다.

다만 리드오프 박정음의 부상은 뼈아프다. 박정음은 2일 고척 SK 와이번스전(5위·61승65패)에서 주루 플레이 도중 왼쪽 새끼발가락 골절로 시즌 아웃됐다.

넥센은 이번주 LG와 SK, 두산을 차례대로 만난다. 2위 탈환을 노리는 넥센은 LG와 SK의 추격을 뿌리쳐야 한다. LG와 SK를 상대로 최대한 승리를 쌓아야 한다.

가을 야구를 향한 중위권 팀들의 티켓 전쟁도 여전히 뜨겁다.

KIA는 지난주 3승2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 자리를 유지했다.

8위 롯데 자이언츠(54승66패)도 6할승률(3승2패)을 기록하며 중위권 도약을 꿈꾸고 있다.

현재 4위 KIA부터 6위(LG)까지는 단



리우에 휘날리는 태극기 5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수촌 플라자에서 '2016 리우 패럴림픽' 한국선수단 입촌식이 열렸다. 가수인 이하걸 선수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입장하고 있다. 한편, 177개국에 참가하는 이번 패럴림픽은 8일 개회식이 열리며 한국은 11개 종목에 8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3경기차에 불과하다. 특히 갈 길 바쁜 LG는 지난주 1승5패(승률 0.167)를 기록하며 고개를 떨궜다. 특히 수비에서의 실책이 뼈아팠다. LG는 10개팀 중 가장 많은 9개의 실책을 범하면서 무너졌다. 팀 타율은 0.273로 다소 부진했다.

박용택이 KBO리그 최초로 5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마운드가 붕괴하며 상승 동력을 잃었다.

LG는 넥센, 두산, 롯데를 연이어 만난다. 결코 쉽지는 않은 상대. 이번주 역

시 LG는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SK는 4위 KIA와 만난다. SK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NC에게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에 올라왔다. 이 분위기를 KIA 전까지 이어간다면 4위 자리 탈환도 노려볼만 하다. KIA와 승차는 1.5경기다.

무엇보다 이번주는 한화, 롯데, 삼성의 중위권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5위 SK부터 9위 삼성의 승차는 불과 5경기차. 연승에 따라 충분히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후반기에 선수들의 체력도 변수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 U-12세 유소년 공개 테스트 실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도내 축구 꿈나무 육성 일환으로 유소년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 전북현대 U-12세 육성반 유소년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클럽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년 2회에 한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기 때문에 선수를 꿈꾸는 전라북도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 내 우수 인재 발굴 및 꿈나무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테스트는 9월 11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실시되며, 현재 7세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5학년에게 재학생인 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구단 홈페이지(www.hyundai-motorsfc.com)와 그린스쿨 유소년 전용 홈페이지내 "U-12 선수선발 테스트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후 구단 유소년 육성 지원팀 팩스(063-211-1762) 또는 이메일(jbc-youth@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사인이 없을 경우, 접수는 무료 처리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주말경기 10대0 무승부

K3리그에서 10승 7무 8패(승점 37점)로 4위를 기록중인 전주시민축구단이 지난3일 경주시민구단과 펼친 17라운드 경기에서 10대0의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전 3경기에서 김선규와 김상민의 득점포를 앞세워 3연승을 거뒀던만큼 승리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기였다.

하지만 이번경기는 경주시민구단의 5백에 번번히 공격이 저지당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다.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전주시민축구단은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최종순위 1위부터 11위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상위권 K3리그 어드밴스 진입이 유력하다. /김민근 기자

KBO 김인식 기술위원장, 2017WBC 사령탑 선임

김인식(69·사진)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이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을 이끈다.

KBO는 "김인식 기술위원장을 제4회 WBC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5일 발표했다. 김인식 감독은 2006년 제1회 WBC 4강 진출, 2009년 제2회 WBC 준우승을 이끌었다.

김 감독은 "구본능 총재께서 한번 더 맡아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수락하게 됐다.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은 내년 3월 7~11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네덜란드, 대만 등과 1라운드 B조 예선을 갖는다. 이 중 상위 2위 안에 들면 일본에서 결선 라운드를 펼친다. /김민근 기자



슈틸리케호, 오늘 시리아상대 2연승 도전

손흥민 빠진 왼쪽 측면 이재성 기용 유력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노리는 한국 축구 시리아를 제물로 최종예선 2연승에 도전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 대표팀은 오늘 오후 9시(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세렘반의 파로이 스타디움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2차전을 갖는다.

최종예선 초반 관세를 가능할 중요한 일전이다.

한국은 지난 1일 중국과의 첫 경기에서 3-2 신승을 거뒀다. 3-0으로 앞서던 후반 중반 순식간에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두 골을 잃었지만 목표포였던 승점 3을 획득했다.

시리아를 상대로 승수를 추가해 승점을

6으로 바꾼다면 다음 달로 예정된 카타르(홍·이란전(원정)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다.

특히 다음 달 11일에는 이번 시리즈 최대 고비인 이란 원정을 치러야 하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시리아는 우즈베키스탄전 0-1 패배로 여유가 없다.

이번 경기마저 내준다면 경쟁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한국이 48위로 105위인 시리아에 크게 앞선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3승2무1패로 재미를 봤다. 1984년 12월 싱가포르 아시아

컵에서 0-1로 진 것이 유일한 패배다.

이런 이유들로 시리아는 한국을 맞아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4일 현지에서의 첫 훈련에서 크로스와 짧은 패스들을 집중적으로 다듬으며 밀집수비 타게 책을 찾는데 주력했다.

최전방은 지동원(아우쿠스부르크)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지동원은 중국전에서 득점을 올리진 못했지만 세 골에 모두 관여하는 활약을 펼쳤다.

6년 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시리아를 제물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기본 좋은 기억까지 갖고 있다.

지동원은 "그때 시리아의 멤버와 지금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실력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손흥민(토트넘)이 빠진 왼쪽 측면에는 이재성(전북)의 기용이 유력하다.

이재성은 소속팀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현지 적응 훈련에서도 왼쪽 측면에서 여러 차례 날카로운 패스와 슛을 날리며 슈틸리케 감독의 미소를 자아냈다.

한국이 시리아를 잡아야 할 이유는 또 있다.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자국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시리아가 남은 홈경기를 치르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정상 시리아의 0-3 불수패가 선언돼 상대팀은 싸우지도 않고 승점 3을 챙길 수 있다.

한국이 시리아와 자칫 비기기라도 한다면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팀이 될 수도 있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